

# 코로나 시대 신선한 '馬력'... 승마 인기 상종가

### 광주 영주체육관 대기 인원만 100여 명...최소 6개월 기다려야 등록 "자세 교정되고 동물과 교감·힐링"...남구 도심 속 승마장 건립 검토

광주에서 승마를 즐기는 지역민들이 늘면서 승마가 인기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다.

승마 인구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새해 첫 운영을 개시한 광주 서구 풍암동 영주체육관의 실내 승마장에는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50대 남성까지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후에도 승마 강습을 듣는 회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1년 넘게 승마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채아(10)양은 "야외에서 말과 함께 달릴 수 있어 좋다. 매번 탈 때마다 말과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광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영주승마장은 회원등록 대기인원만 100여 명에 달할 정도다. 지금 강습을 신청하면 6개월 이후에나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영주승마장 측의 설명이다.

코로나 유행 전인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영주승마장의 회원 등록 대기인원은 없거나 10여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3년여동안 사람들이 몰려 붐바글 같은 성수기에는 최대 160여명이 대기를 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영주승마장은 1800㎡ 면적의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곳, 보조마장 1곳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주승마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광주시가 설립하고 광주시체육회가 운영해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평일 4회 또는 주말 2회 말을 탈 수 있는 월 회비는 일반 회원 기준 학생 39만원, 성인 45만원으로 사설승마장과 비슷하지만 비회원 탈타기 체험 비용

은 평일 30분당 학생 2만 5000원, 성인 3만원으로 사설 시설 대비 이용료가 1.5~2배 가량 저렴하다.

승마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코로나19 유행을 피해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면서도, 동물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승마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6년째 승마를 즐기고 있다는 박재홍(58·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큰 부상없이 타면서 자세 교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마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결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말을 타는 내내 스웨트를 하듯이 허벅지를 움직이고, 손으로 고삐를 당기며 버텨야 한다"며 "한 번 말을 타고 나면 전신에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지만 특정 근육에 힘을 줘 부상에 시달리는 골프·헬스 등과 달리 안전하게 타면서도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웃어보였다.

살아 있는 생명체와 함께 운동하다 보니 동물과의 교감도 승마의 매력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승마를 시킨다는 것이다.

말마다 성격이 다른 것도 말을 타고 달리는 즐거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승마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영주승마장 코치인 배현준(28)씨는 "어떤 말은 덩치는 크지만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어떤 말은 작지만 영악해 사람이 만만해 보이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말도 살아움직이는 생명체다 보니 말의 성향에 맞춰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 3년은 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승마 인기 상승세에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남구 도심에 공공 승마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광주의 공공 승마장은 영주승마장 1곳 뿐이



승마 회원들이 지난 3일 광주 서구 풍암동 영주체육관 실내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걷는 평보 훈련을 하고 있다.

다. 사설 승마장은 4곳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광주 외곽에 있어 도심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구 관계자는 "승마장 부지는 규장상 주거지에서 300m 떨어진 곳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마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토대로 승마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96초마다 올린 119

### 광주 지난해 32만6834건 신고 하루 평균 895건...화재는 2건

지난해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895.4건의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96.5초마다 신고벨이 울린 것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22년 한 해 119 신고 건수를 종합한 결과 총 32만683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년보다 7.1%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화재는 총 761건(하루 평균 2건)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8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으며, 재산피해는 34억4600여 만원으로 전년(201억9800여만원)보다 82.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발생 장소는 음식점, 산업시설 등 비주거 장소가 314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 375건(49.3%), 전기적요인 166건(21.8%), 기계적요인 80건(10.5%) 등이 꼽혔다.

구조활동은 총 6770건(하루 평균 18.5건) 접수됐으며 전년보다 29.3% 증가했다.

구급출동으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2173명과 고령·기침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2802명을 병원과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장학금 대신 송아지 받았어요" 완도화흥초 '47년 전통' 화제

### 1976년 졸업생들 6마리 기탁...총 240여마리 '선물'

완도군 완도읍 화흥초등학교는 졸업생들을 위한 독특한 전통이 있다.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 대신 송아지 한 마리씩을 선물하는 것이다.

화흥초는 6일에 졸업하는 졸업생 2명에게 지난 4일 암송아지(7개월) 한 마리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화흥초 졸업생은 3명이며, 이 중 2명이 장학금으로 송아지를 받았다. 졸업생 1명은 장학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흥초는 지난 1976년부터 무려 47년 동안 송아지 장학금 전통을 이어 왔다.

화흥초 졸업생들이 장학회를 설립해 기금을 마련한 뒤 당시 귀했던 송아지 6마리를 구입해 졸업생에게 나눠준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매년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대신 송아지를 주는 전통이 생겼다는 것.

지금까지 화흥초가 졸업생들에게 전달한 송아지만 24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선물받은 송아지는 부모가 직접 키우거나 축산농가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송아지를 선물받은 졸업생 조다연(13)양은 "장학금으로 소를 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최선주 화흥초 전 운영위원장은 "송아지를 사서 축산 농가에서 키워 3년에 한 마리씩 다시 내놓고 있다"면서 "전교생이 39명까지 줄어든 화흥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를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땀땀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새해 벽두 노점 단속 당장 중단하라"

### 광주 지역 노점상들 반발

광주지역 노점상들이 2023년 새해에 실시하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 합동 단속 실시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지역노점상연합회는 5일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노점 단속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 등이 새해 벽두부터 적치물 단속

과 도시미관을 명목으로 노점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면서 "노점단속은 코로나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영세 상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현수막 몇 장 붙여놓고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면서 "선거 때는 노점상을 서민 코스프레 배정대로 삼지만 선거가 끝나면 단속에 혈안이 되는 것은 최하위 취약계층 민생을 외면하는 전시행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철영 광주노점상연합회 회장은 "고물가속에 노점상인들은 하루 몇만원의 수입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함께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군 소음피해 접수 시작

### 광주 광산구, 평동사격장 포함

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9일부터 2월 말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인민 신청할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 일원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보상 기간은 광주 군 공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평동 군 사격장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이다.

접수처는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 준비 서류, 보상금 지급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군 소음 포털 또는 광산구 누리집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